幼兒敎育硏究
2023. 제 43 권 제 2 호, 353-377 http://dx.doi.org/10.18023/kjece.2022.43.2.013

영국의 5세 취학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 승 하*
김 혜 원**

≪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5세 취학의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의 학제 및 취학연령, 그리고 이로 인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취학연령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영국의 취학연령은 산업화로 인한 고용주와 부모의 요구, 초등학교의 신입생 확보 문제, 취약계층가정의 유아를 위한 보육 및 교육과 관련이 있다. 관련 쟁점 -이른 취학을 지지하는 이유-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이른 취학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나타났다. 생의 이른 단계에 형식적 교육을 빨리 시작하여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유아들의 인지적 발달을 돕기보다 오히려 학업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가정의 유아들은 이른 취학으로 잠깐은 도움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러한 효과는 일부에만 해당하고 있었다. 취학연령에 대한 논의는 결국 교육기관에서 유아의 발달수준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귀결되며, 사회경제적 이익창출이나 국가발전과 같은 외부적 목적보다 유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유아교육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주제어(keywords): 취학 연령(starting school age)
영국(United Kingdom)
5세 취학(starting elementary school at age five)
교육 제도(educational system)

※ 논문 투고 2023.02.28. / 수정본 제출 2023.03.14. / 게재 확정 2023.03.19.

*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교신저자(hwkim@yu.ac.kr)

www.kci.go.kr

Ⅰ. 서론

우리나라의 아동은 일반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서 명시된 대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초등학교 취학연령은 1949년 교육법에 '6세'로 명시된 이후 실제로 바뀐 적은 없다. 하지만 취학연령을 5세로 하향화하려는 방안은 여러 정부에 걸쳐 시도되었다(조유라, 2022). 역대 정부의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사례를 살펴보면, 1993년 김영삼 정부 시기에 여당인 민주자유당에서 취학연령 5세 하향을 제안하였고 1995년 12월 '5세도' 조기 취학을 허용하는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전략'에서 취학 연령 5세 하향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오면서 무산되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으로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화를 제안하였으나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의 검토를 통해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등학교 5세 입학' 방안은 계속 제안되었으나 정책으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2022년에 교육부가 5세 초등 취학 학제 개편안 추진을 다시 발표하였으나 관련 분야 전문가, 학부모, 시민 단체는 거세게 반대하였고 결국 정부는 정책 추진을 철회하였다. 정부의 5세 취학 정책 추진 취지와 이에 대한 학계의 의견은 팽팽하게 대치된다. 정부는 초등학교 취학 1년 하향화를 통해 누적적으로 생기는 학습결손을 최소화하여 교육격차를 줄이고,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게 하여 젊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기대하였다(YTN24, 2022). 반면 학계는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면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골조로 5세 취학제도 추진 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거론하였다.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 또한 학계 및 학부모의 반발을 촉발시켰다. 정부의 5세 취학을 추진하는 방식은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으로 이루어졌다. 즉 교육부의 입장인 '취학연령 하향'을 발표한 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을 계획하고 있었다(교육부, 2022).

1993년부터 시작하여 여러 정부가 시도했던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하향화' 정책은 학계, 학부모, 시민 단체가 반대한 대로 과연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혹은 정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하향화로 기대하는 것이 실제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실제 5세 취학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OECD 가입국들은 일반적으로 의무교육(compulsory education)을 초등학교 취학과 함께 시작한다(OECD, 2022). OECD 가입국의 초등학교 취학연령은 대개 우리나라와 같이 6세이며 이때 의무교육이 시작된다. 초등학교 취학연령이 7세인 국가(예: 에스토니아, 핀란드)가 있는 반면, 초등학교 취학연령이 5세인 국가도 있다(예: 영국, 뉴질랜드).

이 중 영국은 5세 취학연령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다. 영국은 영연방 지역(잉글

www.kci.go.kr

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 따라 각각 다양성의 특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교육과정 및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944년 교육법 35조와 1996년 교육법 8조(Education Act 1944, Section 35; Education Act 1996, Section 8)에 명시된 대로 의무교육 대상의 취학연령은 5세이다.

영국의 유아교육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 몇 편 존재한다. 지성애 외(2007)의 연구에서는 영국의 영유아교육·보육 제도를 상세히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보육제도와 비교하고 있다. 김명순 외(2016)의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의 영유아교사 양성체제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취학연령 이슈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조성연 외(2006) 뿐이다. 조성연 외(2006)에서는 영국의 학제를 고찰하고, 조기 취학의 문제점과 더불어 우리나라 학제 개편의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고 있다. 조기 취학이 가져오는 문제를 심도있게 고찰하고 있으나, 5세 취학이 정해진 연유 혹은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나타나 있지 않다.

문화적, 역사적, 제도적 상황이 다른 외국의 사례가 한국의 완벽한 모델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문화권을 불문하고 연령에 따라 공통으로 나타나는 영유아의 발달특성, 유아교육의 목적이나 영유아교육기관 등 영유아교육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여러 요소를 살펴보는 것은 해당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학연령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더구나 해당 국가에서 특정한 취학연령이 정해지게 된 근거를 접하게 된다면 5세 취학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거나 비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5세 취학의 장단점과 취학제도 시 고려해야 하는 판단의 기준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수도 런던이 있고 영국 전체 인구 중 84%가 집중된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영국의 학제 및 취학연령, 그리고 이로 인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취학연령 및 유아교육체제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영국의 학제와 취학연령

1. 영국의 학제: 역사와 현황

1) 영국의 학제 역사

영국은 1988년 이전에는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만이 필수과목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과목은 각 학교가 자율적인 결정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하였다. 영국은 1988년에 이후 모든 학생이 균형 있는 교육을 받기 위한 취지로 교육법을 통해 국가교육과정 체제를 도입하였다.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왔으며, 가장 최근 개정된 국가교육과정은 2014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DfE], 2014).

www.kci.go.kr

2) 영국의 학제

영국의 교육은 다섯 단계(Early Years, Primary, Secondary, Furt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로 나누어진다(DfE, 2014). 의무교육연령은 5세(북아일랜드는 4세)에서 16세까지이며, 의무교육기간(5~16세)은 4개의 단계(stage)로 구분한다. 유아교육과정은 Early Years로 별도로 구분된다. 영국의 초중등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Key Stage(이하 KS표기)라고 불리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먼저, 영유아기 기초교육과정(Early Years Foundation Stage: EYFS)은 0~5세 영유아를 위한 학습, 발달과 교육의 표준을 설정한 교육과정이다(DfE, 2021). 영국 학제에서 두 번째 단계인 Primary education은 우리나라 초등교육(Year 1~Year 6)에 해당하는 교육단계로, KS 1과 KS 2를 포함한다. 세 번째 단계인 Secondary education은 중등교육(Year 7~Year 11)에 해당하며 KS 3과 KS 4를 포함한다. KS 4에서는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라는 중등학교 자격시험을 실시하는데 이를 위해 영국학생은 KS 3단계 9학년에 시험을 치를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을 고르고 10~11학년에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등급은 A*, A, B, C, D, E, F, G로 구분되며 보통 C 이상을 합격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Further Education(FE)에 속하는 Six Form 코스는 후기중등교육이라 할 수 있다. GCSE 시험에서 C 혹은 B 이상의 등급을 받은 학생 중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은 Six Form 코스를 이수해야 하며 이후 A-level 이라는 시험을 치른다. 이 점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단계에 속하는 대학에 지원하게 된다(주영한국교육원 홈페이지). Higher education에서는 3년제 대학에서 수여하는 학사학위과정(degree course), 대학은 아니지만 1년제 자격증 과정, 2년제 직업전문대학 등이 있으며 1년제 자격증 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증(certificate), 2년제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위(diploma)를 수여한다.

〈표 1〉 영국의 아동 연령별 학년 / Key Stage 구분 및 평가 시행

연령	학년(Year)	학교급	Key Stage(KS)	국가 수준 평가
3-4		Nursery	Early Years	-
4-5	Reception	Reception	Early Years	EYFSP(Foundation Stage에 대한 평가)
5-6	Year 1	Primary	KS 1	글자-소리 대응 관련 평가 (Phonics screening check)
6-7	Year 2			영어(읽기)와 수학: 국가 수준 평가 & 영어(읽기, 쓰기), 수학, 과학: 교사 평가
7-8	Year 3		KS 2	-
8-9	Year 4			12단 시험(Multiplication tables check)
9-10	Year 5			-
10-11	Year 6			영어(읽기), 수학, 문법, 맞춤법, 철자: 국가 수준 평가 & 영어(읽기). 과학:

www.kci.go.kr

				교사 평가
11-12	Year 7	Secondary	KS 3	-
12-13	Year 8			
13-14	Year 9			
14-15	Year 10		KS 4	GCSE
15-16	Year 11			
16-17	Year 12	Sixth Form	Sixth Form	-
17-18	Year 13			A-level

출처: 영국정부홈페이지(https//www.gov.uk/national-curriculum) 및 주영한국교육원홈페이지 (http://koreaneducentreinuk.org)에서 발췌하여 수정 및 보완함(2023년 2월 20일 인출)

영국의 국가수준교육과정은 핵심(core) 교과(영어, 수학, 과학)와 기초(foundation) 교과(미술과 디자인, 시민성, 컴퓨팅, 테크놀로지, 외국어, 지리, 역사, 음악, 체육)로 구분되고 총 12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DfE, 2014)(표 2 참조). 초등학교에 입학한 5세 유아의 경우, 영어, 수학, 과학, 미술과 디자인, 컴퓨팅, 테크놀로지, 지리, 역사, 음악, 체육과 같이 10개의 과목을 배워야 한다. 또한, 모든 학교는 모든 KS에서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을 가르쳐야 하며, 고등학교에서는 성과 관계 교육(sex and relationship education)을 제공해야 한다.

〈표 2〉 영국의 국가수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 구조

		Key Stage 1	Key Stage 2	Key Stage 3	Key Stage 4
연령		5-7	7-11	11-14	14-16
학년(Year groups)		1-2	3-6	7-9	10-11
핵심 교과	영어	√	√	√	√
	수학	√	√	√	√
	과학	√	√	√	√
기초 교과	미술과 디자인	√	√	√	
	시민성			√	√
	컴퓨팅	√	√	√	√
	테크놀로지	√	√	√	
	외국어		√	√	
	지리	√	√	√	
	역사	√	√	√	
	음악	√	√	√	
	체육	√	√	√	√

출처: DfE (2014:7). The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Framework document.

www.kci.go.kr

3) 영국의 영유아교육 및 보육체제

(1) 영유아교육 · 보육기관의 유형

영국의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은 매우 다양하며 각 유형에 따른 물리적 환경이나 운영방식도 다양하다. 크게, 초등학교에 속한 예비학급과 그 외 프리스쿨(preschool)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프리스쿨에는 아동센터(children's centre), 유아학급(nursery class), 유아학교(nursery school), 놀이집단(play group)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자세한 설명은 표 3과 같다.

〈표 3〉 영국의 영유아교육 ·보육기관 유형

기관유형	대상	국가지원 여부
보육시설 (day nursery)	5세 미만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서비스 기관	(공적 지원받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 민간운영
놀이집단 (play group)	대체로 시간제, 반일제로 운영, 2-4세 유아들 대상. 교회와 같은 비영리집단에 의해 운영	
유아학급 (nursery class)	초등학교 내에 있는 3-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급, 반일제로 운영	공적 지원
유아학교 (nursery school)	3세 유아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교와는 독립된 취학 전 유아교육기관	공적 지원
아동센터 (children's centre)	0-5세 영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보육을 비롯한 통합적 지원센터	공적 지원
가정보육 (childminding)	모든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육	공적 지원 혹은 민간
취학아동보육 (chidcare for school-children)	방과 후 돌봄(8세까지)	공적 지원 혹은 민간
예비학급 (reception class)	초등학교 내 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급	공적 지원

출처: Melhuish, E. (2016). Longitudinal research and early years policy development in the UK.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10(1), 1-18. 에서 발췌하여 표로 정리

영국의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은 다양한 만큼 질적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대체로, 공립기관이 사립기관 보다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훨씬 우수하다는 점이 나타났고 이는 결국 교육과정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elhuish & Gardiner, 2019).

(2) 국가수준의 영유아 기초교육과정(Early Years Foundation Stage)

EYFS는 2008년에 처음 소개되어,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고, 최근 개정은 2019년에 이루어졌다. EYFS는 유아주도, 교사주도와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한다. EYFS에서 제시하는 학습 영역은 총 7개이며, 주요(prime) 영역과 특수(specific) 영역으로 구분된다(표

www.kci.go.kr

4). 주요 영역은 모든 유아가 호기심과 열정을 지니고 학습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며, 특수 영역은 주요 영역을 더 강화하는 영역이다(DfE, 2021). 각 영역에서 달성해야 하는 목적(Early Learning Goals: ELGs)이 자세히 제시되어 있으며 7개 영역에 걸쳐 총 50여개가 존재한다.

교사는 EYFS의 7개의 영역을 모두 지원해야 하며, 유아들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형식적 교육을 준비시킬 책임이 있다. 특히 EYFS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문서에서는 유아가 4세에 예비학급에 입학하게 되면 특수 영역에 포함된 기초적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데 훨씬 더 많은 집중(greater focus)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1학년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중심의 형식적 학습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DfE, 2021).

〈표 4〉 영국의 영유아기 기초교육과정(Early Years Foundation Stage)의 학습 영역

	영역(areas)
주요 영역 (prime areas)	• 의사소통과 언어(Communication and language) • 신체 발달(Physical development) • 개인·사회·정서 발달(Personal,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특수 영역 (specific areas)	• 문해(Literacy) • 수학(Mathematics) • 세계 이해하기(Understanding the world) • 예술 표현 및 디자인(Expressive arts and design)

EYFS에 대한 평가는 총 3번 이루어진다. 첫 번째 평가는 2세의 발달 정도(잘 발달하고 있는 영역, 덜 발달한 영역, 염려되는 영역)를 확인한다. 두 번째 평가는 reception year가 시작되는 시점인 4세 초반에(초반 6주 이내) 실시한다. 세 번째 평가는 EYES에 끝나는 시점인 5세 말에 시행되고, 이 결과는 초등학교 1학년 교사에게도 전달된다. 평가는 대체로 교사의 관찰에 의해 이루어지며, EYFSP의 경우 부모 혹은 주 양육자와의 면담 등까지 포함하여 유아의 발달수준, 기술, 능력을 ELGs에 비추어 평가하게 되어 있다(National College for Teaching & Leadership, 2013)

(3) 영유아교사자격

영국은 교사의 최종학력에 따라, 영유아교사등급을 구분한다. 더욱 엄밀히 말하면, 영국은 유아학교, 유아학급, 예비학급(nursery class/school, reception class)에서 일하는 교사와 이들을 제외한 영유아보육 관련 종사자(childcare workers)로 구분된다. 이들은 교사와는 다른 교육과정 및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childcare worker'로 통칭하기도 한다. 영유아보육 관련 종사자 및 영유아교사는 최종학력에 따라 교사등급이 나누어져있다(표 5).

Level 1, Level 2의 경우는 보조역할만 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유아들을 지도할 수 없다. 따라서, 정식교사는 최소한 Level 3 자격을 갖춰야 한다. 공립교사는 QTS(Qualified

www.kci.go.kr

Teacher Status: 교원자격지위)가 필수이기 때문에 예비학급교사는 학사학위 이상이어야 하며 교사자격이라 할 수 있는 QTS가 있어야 초등학교 내 리셉션에서 교사로서 근무할 수 있다. 교사의 경우 학사학위과정에서 EYTS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만약 학부가 교육과 관련한 학과가 아니라면, graduate entry(전일제 교육과정)방법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예비학급교사가 되는 프로그램으로 12개월동안 교육이 이루어진다.

〈표 5〉 교사등급과 자격요건

등급	자격요건	취득연령 및 내용
Level 1	GCSE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D-G(Lower level of pass)	16세 취득,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장에 해당(낮은 등급)
Level 2	GCSE A* -C (Higher level pass)	16세 취득,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장에 해당(높은 등급)
Level 3	A-Level (Advanced level examination)	18세에 취득
Level 4	Certificate of Higher Education	18세에 취득
Level 5	Diploma of Higher Education	18세 이상에서 취득
Level 6	Batchelor 's degree	학사
Level 7	Masters' degree	석사
Level 8	Doctorate	박사

출처: Melhuish & Gardiner (2019). Structural factors and policy change as related to the qual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for 3-4 year olds in the UK. Frontiers in Education, 4, p.35. 에서 내용발췌 및 정리

Bonetti(2019)는 2018년에 잉글랜드 지역 영유아보육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단위 설문조사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표 6은 관련 종사자들의 최종학력 비율을 보여준다. 후기 중등과정을 이수한 A-level 수준의 학력을 지닌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36%)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학사학위 혹은 그 이상을 받은 비율은 대략 25% 정도이다. 그다음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일반 중등과정(GCSE)을 졸업한 경우가 19%, higher education(고등교육) 단계에 속하지만, 학사학위과정이 아닌, 2년제 전문직업대학에서 운영하는 diploma, foundation(대학 예비과정) 등의 수준을 갖춘 경우가 13%였다.

잉글랜드의 전체 노동인구 중 A-level 학력 소지자는 21%인 것에 반해, 영유아보육계에서는 A-level 학력 소지자의 비율이 36%나 된다는 점은 전반적으로 이 직업 종사자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을 반영한다(Bonetti, 2019).

www.kci.go.kr

〈표 6〉 잉글랜드 지역 영유아교육·보육 종사자의 최종학력

최종학력	%
학사학위 혹은 그 이상	25.1
학사학위를 포함하지 않는 고등교육과정 (예: 2년제 직업대학과정 등)	13.0
A-level	36.0
GCSE	18.9
그 외	4.2
자격 없음/모름	2.9

출처: Bonetti (2019:26). The early years workforce in England: A comparative analysis using the Labour Force Survey. Education Policy Institute.

2. 영국의 초등학교 취학연령

1) 영국의 취학연령(School Starting Age)

영국의 취학연령은 영연방 구성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4세를 의무교육 연령으로 제정한 북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5세를 학교교육 시작연령으로 규정하였다. 영국 유아는 5번째 생일부터 의무교육 연령(compulsory school age)에 들어가며, 대부분의 영국 유아는 4번째 생일이 지난 후부터는 reception class라고 하는 학교에 딸린 예비학급에 들어간다. 따라서 학년이 시작되지는 않더라도 학교를 시작하는 나이, 즉 취학연령(starting school age)은 사실상 4세라 할 수 있다. 만약 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아직 예비학급에 들어가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여길 경우, 학교를 시간제(part-time)로 다니게 하거나, 5번째 생일이 지난 이후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입학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영국정부 홈페이지).

영국의 학사는 3학기(terms)로 운영된다. 9월(Autumn term), 1월(Winter term), 4월(Summer term)에 각 학기(term)가 시작하며 6-7월이 되면 여름방학에 들어가고, 1년의 학제를 마치게 된다. 부모가 특정 이유로 입학을 연기하더라도, 만 5세 생일이 지난 직후 다가오는 학기(term)에는 의무교육(초등 1학년)에 반드시 입학해야 한다. 예를 들어 7월 31일이 5번째 생일인 유아는 같은 해 9월(Autumn term)에는 반드시 1학년으로 입학해야 한다.

2) 4세 취학과 5세 의무교육 실시 배경

영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이른 입학연령제도를 지니게 된 배경에는 사회적 요구 및 정치적 요인이 존재한다. 영국의 취학연령에 대한 역사는 1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70년 통과된 영국 초등교육법(The Elementary Education Act)에 따르면, 적어도 10세까지는 모든 어린이가 학교에 가야 하며 그 시작연령은 5세가 되어야 한다고

www.kci.go.kr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명시된 '5세'라는 연령은 교육적으로 타당한 근거, 아동발달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19세기 말 산업화로 인한 공장소유주의 요구 및 20세기 중후반 취업모 증가로 인한 부모의 요구, 초등학교의 예산확보 문제,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한 영유아의 교육과 돌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시된 연령이었다.

첫째, 산업적 측면에서의 요구였다. 당시 공장 소유주들은 직원들이 좀 더 교육받은 인력이기를 원했다. 국회의원들(Members of Parliament: MPs)은 빨리 배우기 시작하면 빨리 끝날 것으로 생각했다. 당시 5세에 입학하게 되면 초등교육(primary education)을 끝나게 되는 12세에도 산업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Sharp & O'Donnell, 2007).

소수의 국회의원은 너무 어린 나이에 학교에 매일 출석하게 하여, 도덕적 가치나 생활태도, 그리고 지식교육을 주입하는 게 무리라고 여기고 반대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사회적 요구와 여건들로 인하여 3, 4세가 학교에 등록되었으며 1900년에는 3, 4세 유아의 43%가 학교에 등록했다(Alexander, 2010). 당시, 5세 미만의 어린이가 학교에 가면 안 된다는 어떠한 법적 금지조항도 없었기 때문에, 5세 미만의 많은 유아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Sharp & O'Donnell, 2007). 5세 미만의 유아들이 초등학교 수업에서나 이루어지는 단조로운 반복과 기계적 학습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1905년의 영국 교육기준청(Ofsted*)에 의해서였다. 교육기준청에서 실시한 감사를 통해 어린 유아들은 독립된, 분리된 학교에서 배워야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Alexander, 2010).

또한, 사회적으로 취업 여성이 증가하는 점도 이른 취학과 관련한다.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학교에 일찍 보내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진 데 반해 1980년대 영유아교육기관의 수는 부모의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의 예비학급이 편성되었는데, 이로 인해 취학연령은 더욱 빨라졌다.

둘째, 교육기관의 신입생 확보와 관련이 있다. 1988년 교육개혁법은 각 학교에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더 많이 부여해주었다. 예산액은 재학생 수와 관련이 있었다. 재학생 수는 당시 출산율감소에 따른 아동 인구의 감소와 맞물리게 되면서, 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더 어린 연령의 학생을 모집하게 되면 학생 수를 증가시킬 수 있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다. 더구나 당시 재학생 수 감소로 교실이 남아돌아 어린 학생을 수용할만한 물리적 조건도 따랐다(Sharp & O'Donnell, 2007). 또한, 유아학교나 유아학급(nursery class)에 적용되던 교사 대 유아의 비율(1:13)은 초등학교에 설치된 예비학급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유아교육기관은 유아교육과정을 이수한 특정한 교사자격이 요구되었기에, 과정적 측면에서도 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이 학교 내 예비학급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나 학교 입장에서는 입학연령을 낮춰서, 1학년 이전의 예비학급을 편성하는 것이 학교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효율적 방법이 되었다(Riggall & Sharp, 2008).

* The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의 약어. 교육 관련 감사기관으로, 교육기관에 감사관들을 파견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학교별 교육에 대한 우수성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긴다.

www.kci.go.kr

산업화로 인한 어른들의 요구, 초등학교의 예산확보, 취학인구 감소 등의 분위기 속에 초등학교에 4세 유아들을 수용하라는 압력이 지역당국에 가해졌고 그 결과 유아교육기관에서 4세를 없애고, 이들이 초등학교로 옮겨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유아원, 유아학교, 놀이집단 같은 다른 유아교육기관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다(Sharp & O'Donnell, 2007).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을 교육기관에 수용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른 시기의 학교 입학이 추진되었다. 1816년 오웬이 스코틀랜드에 영국 최초의 유아학교를 설립했음에도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유아교육 및 보육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국가가 아니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영국 정부는 유아교육에 많은 투자를 시작하였고, 유아교육 분야에서 빠른 변화가 일어났다(Alexander, 2010). 현재 영국은 영유아기 교육이 주로 초등학교 내의 교실(예: 예비학급)에서 대략 1년간 이루어지며, 3-4세 유아 혹은 그 미만 유아들을 대상으로는 교육이 아닌 보육체제 서비스가 중심이 되고 있다.

영국의 이른 취학제도는 보육기관이 양적으로 매우 부족했던 역사, 보육기관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기관별로 존재하는 질적 편차, 그리고 이로 인한 아동의 배움의 격차 발생 등과 관련이 있다. 영국은 유아가 학교에 가기 전에는 교육보다는 보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습을 돕고자 이른 취학연령제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Ⅲ. 이른 취학의 쟁점

영국 내에서 취학연령에 대한 논쟁은 수없이 지속되어 왔다. 최근 영국의 취학연령에 대한 정책을 분석한 McMurray의 보고서에서는 이른 취학연령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McMurray, 2021:5).

- 유아가 더 빨리 배우기 시작하면 생의 유리한 출발을 할 수 있다.
- 유아는 학교교육과정에 내재된 형식적 학문기술을 이른 시기에 습득할 수 있다.
- 이른 출발은 특히 (인지적, 사회적으로) 박탈된 환경에 처한 유아들에게 그들의 학업 능력과 기술을 보완해줄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위의 이유를 쟁점으로 삼아 하나씩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일찍 시작하면 더 많이 배우고 더 발달이 빨라지는가?

유아기에 이루어지는 형식적 교육과 유아의 발달속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www.kci.go.kr

가 존재한다. 특히 약 20년 전 널리 알려진 Sharp(2002)의 보고서에 의해 조기의 형식적 교육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규명되었고, 그 이후 행해진 많은 연구에서도 이른 입학연령이 유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Balestra et al., 2020; Black et al., 2011; Crawford et al., 2013; Fredriksson & Öckert, 2013).

Sharp(2002)는 입학연령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정책과 그 영향력을 분석하면서, 이른 입학이 유아의 발달에 주는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도 찾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학문적 기술을 일찍 배울수록 좋다는 것은 어떠한 증거도 없었으며, 4세 혹은 5세가 법적인 취학연령이 되어야 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더 나아가 학교를 늦게 시작하는 것이 유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 읽기, 쓰기, 셈하기를 배운 어린이가 그것을 배우지 않은 같은 연령의 다른 어린이들보다, 이후에 학업수행을 더 잘한다는 연구결과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 당시에는 읽기, 쓰기, 셈하기를 먼저 배운 어린이들이 학문적 기술을 더 많이 습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결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다(Sharp, 2002).

오히려 늦은 취학연령이 이롭다는 점은 많은 연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Bradfield & Priestley, 2021; McMurray, 2021). Bradfield와 Priestley(2021)의 보고서에는 늦은 취학연령이 여러 면에서 이롭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늦은 취학연령을 지닌 집단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모두 높은 점수의 성적을 보여주었다. 또한, 늦은 취학연령 집단은 고등학교에서의 리더쉽이 높아지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Black et al.(2011)에서는 노르웨이 인구자료에 등록된 표본을 대상으로, 입학연령을 기준으로 한 코호트 방식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자료는 노르웨이 국민의 교육, 가족사항, 세금 및 수입 등이 저장된 자료로써, Black과 동료들은 1960~19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입학연령과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1980~2000년대)의 정신건강, IQ, 수입 등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를 늦은 나이에 시작한 남성의 경우 30세가 되었을 때의 수입이 약간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늦게 학교를 시작한 18세 때의 정신건강이 더욱 좋았고, 10대 임신이나 출산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때 수입이 적게 나타난 남성집단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의 가정환경을 가진 경우에만 해당했고 다른 남성집단에서는 늦은 입학연령과 수입과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유사하게 핀란드 자료에서는 취학연령이 1년 증가할수록 교육성취도는 0.16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학연령이 노동시장에서 임금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Fredriksson & Öckert, 2013). 취학연령이 1년 늦었던 사람들의 26세~35세 사이의 수입은 1년 일찍 취학한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후의 연령대에서는 오히려 약간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학을 1년 늦게 하면 입직연령이 1년 하향화된 데에서 기인한다. 종합해보면, 이러한 연구결과는 늦은 취학연령의 경우 사회초년생일 때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Fredriksson & Öckert, 2013).

www.kci.go.kr

스위스 연구에서는 취학연령이 늦을수록 행동문제를 덜 보였고, 언어 지연도 덜 보였다. 취학연령과 학습장애, ADHD, 난독증은 관련이 없었다. 또한, 이러한 영향력은 초등학교 입학 후에 더 증가되었고 의무학교교육 기간 내내 지속되었다. 하지만 취학연령은 취직, 수입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alestra et al., 2020).

잉글랜드 지역에서 행해진 연구(Crawford et al., 2013)에서는 같은 5세라 하더라도 이전 해의 9월에 태어난 유아와 가을학기 입학 직전, 즉 8월에 5번째 생일이 막 지나고 취학한 유아들은 이후 아동, 청소년기 동안 학교성적 등 여러 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8월에 태어난 유아(일명 summer-born child)들은 9월이 생일인 어린이들 즉 5세 11개월에 취학을 한 유아들보다 학업성적, GCSE 등급이 6.4% 낮게 나타났고, 18—19세에 대학을 가는 경향이 2% 낮았으며, 학위취득도 1%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11세가 되었을 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분류되는 경향도 5.4%가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들은 성인기까지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았다. 즉 일찍 혹은 늦게 취학했다 해서 수입이 더 높다거나, 덜 건강하다거나 덜 행복하다거나 하는 정신적 삶의 질, 물질적 풍요로움과는 관련이 없었다(Crawford et al., 2013).

미국에서 행해진 Dhuey et al.(2019)의 연구에서도 낮은 학업성취도는 연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9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8월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연령에 따른 학생들 간의 차이를 증대시킬 수 있는 교수방법은 피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유아들이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교수방식을 시행해야 이러한 이른 취학연령의 부적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Fredriksson & Öckert, 2013), 이는 결국 놀이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유아들에게 적합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종합하자면, 유아의 발달에 좋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해 학문적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의 연구결과는 많이 존재한다. 여러 연구결과는 결국 일찍 학교교육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삶의 질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이른 취학이 주는 위험성이 존재하며 때로는 늦은 취학연령이 중장기적 측면에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이른 취학은 유아가 학습기술을 더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가?

학업 지식을 일찍 습득하고 관련 기술을 일찍 가르치는 것이 이후 영유아의 인지적 발달이나 학습 혹은 여타 다른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가? 이에 대해서는 영국의 예비학급에 적용되는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이 유아들의 학습기술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는 유아의 예비학급적응정도(Turner-Cobb et al., 2008), 유아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Roberts-Holmes, 2015; Sanders et al., 2005), 상대적으로 월령(月齡)이 어린 유아의 성취도(Norbury et al., 2016)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www.kci.go.kr

1) 지식중심의 형식적 교수방식에 대한 유아와 교사의 스트레스

예비학급에서 실시하는 지식중심의 교육은 유아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점이 보고되었다. Sanders et al.(2005)은 문헌분석, 전화인터뷰, (학교방문을 통한)사례연구 등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을 활용해서 예비학급에서 1학년으로 올라간 유아, 교사, 부모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1학년이 된 70여명의 유아들과의 면담을 통해 밝혀진 것은, 유아들은 1학년이 된 후 학업에 큰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는 점이었다. 유아들은 가장 힘든 점으로, 매일 힘든 과제(hard work)를 해야 한다는 점, 즉, 놀지 못하고 책상에 앉아서 셈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과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또한 역할놀이가 없어서 불만이며, 매우 지루하고 자신들의 놀이 시간이 공부로 낭비되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학교를 시작하기 6개월 전에 어린이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수치가 올라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특히 더 외향적인 어린이일수록 학교입학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코티졸 수치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urner-Cobb et al., 2008). 이러한 결과는 5세에 실시하는 학업중심의 형식적 교육은 유아의 발달을 돕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발달적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교사 역시 지식중심의 형식적 교육과정을 유아에게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Foundation Stage에서는 좀 더 놀이중심의 접근을 취하지만 1학년(KS 1)이 되어서는 구조화된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문해, 수학시간은 힘든 시간이라 보고하였다. 특히, 5세 아이들을 가만히 앉혀놓는 것, 교사의 말을 듣도록 하는 데만 교사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었다(Sanders et al., 2005).

2) 평가 목표 달성에 대한 압력

많은 학자들이 5세 이전의 형식적인 학문교육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McMurray, 2021; Sharp, 2002). 하지만 EYFS에서는 읽기, 쓰기, 수학이 교과과정의 핵심 영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EYFS가 끝날 무렵에는 이에 대한 평가(Early Years Foundation Stage Profile: EYFSP)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입학을 1년 앞둔 예비학급에서는 KS 1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 대한 압력을 받는다.

예비학급에서는 개별유아의 특성과 발달속도를 배려하기보다 1학년에서 기대하는 지식과 기술 수준에 유아의 능력이 미치는지를 목표로 삼는다. 이들이 달성해야 하는 특정 표준치를 정해놓기에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교사의 실패, 교사의 책임처럼 여기게 되며, EYFSP에 대한 자료의 질이 곧바로 교사의 교육능력처럼 여겨지고 교사는 이에 대한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Roberts-Holmes, 2015).

EYFSP에서는 성차가 나타나는데 대체로 여아가 남아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성취와 발달속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예비학급의 남아들은 의사소통 영역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지 못하였으며, 듣는 사람을 별로 고려하며 말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Ofsted,

www.kci.go.kr

2007). 이는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상위학급의 교육과정에 기계적, 일방적으로 유아들이 맞추어져야 하는 하향식(top-down) 교육과정의 폐해를 보여준다.

3) 출생 계절에 따른 취학연령의 문제

영국은 9월에 학년이 시작된다. 따라서 학기 직전인 여름에 태어난 아이들(이하 Summer-born children으로 표기)은 다른 아이들과 11개월까지 출생 기간이 차이가 난다. Summer-born children은 영국교육체제에서 지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들의 학업성취, 발달속도 등은 영국하원(House of Commons)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Summer-born children은 발달적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다. 실제 여러 연구에서 해당 학년에서 가장 어린 어린이들, 즉 여름에 태어난 어린이들은 더 나이든 어린이들보다 더 낮은 수행을 보인다. 이러한 출생일 효과는 유아기와 초등학교에서 가장 크고 눈에 띄며 KS 3, 4를 거치면서 점점 감소한다. 8월에 태어난 어린이들이 (이전 해의) 9월에 태어난 어린이보다 지니게 되는 이러한 불리함은 KS 1에서 25%, KS 2에서 12%, A level에서 1%로 낮아진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GCSE에서 여전히 유효한 채로 남아있다(Sykes et al., 2009).

Summer-born children의 부모들은 때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하나, 이들의 입학연기가 받아들여져도, 이는 형식적 지식교육이 이루어지는 예비학급을 건너뛰는 것일 뿐 이들도 5번째 생일이 지나서 의무교육인 1학년으로 입학해야 하는 것에는 동일하다. 영국 정부는 어떠한 입학연령을 취하든지 간에 가장 어린 연령은 존재하기 마련이라고 하며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McMurray, 2021).

학교를 다니는 기간 내내 Summer-born children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예비학급과 1학년에서 이들에게 제공되는 학교 일과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아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학교에서 시간을 더 쓰게 할 뿐이며 이들의 고초에 비해 얻는 것은 많지 않고 오히려 대학입시 때까지 그러한 불리함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연구가 6세, 7세에 형식적 학교교육을 시작해야 하며, 그보다 이른 연령에 시작하게 되면 어린이의 자신감과 학습능력에 장기적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유아교육학자 Lilian Katz(2007: Alexander, 2010에서 재인용)는 어린 시절의 형식적 학교교육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펼쳤다. 그에 의하면 '영국은 아이들이 준비도 되기 전에 배움을 강요한다면 아이들이 평생 읽기를 미룰 것이라는(put children off reading for life)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라며 비판하였다.

Norbury et al.(2016)은 예비학급 유아 7267명을 대상으로 유아의 언어유능성, 학업성취를 측정하였다. 교사가 생각하는 각 유아의 능력을 설문지를 통해 측정한 결과 가장 어린 그룹(출생 월이 5월~8월인 집단)에서 행동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EYFSP에서 good level*을 받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들은 의사소통능력, 사회정서기술에서 가장

* EYFSP는 17항목의 3점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emerging'(1점 부여), 'expected'(2점 부여) 'exceeded'(3점 부

www.kci.go.kr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더구나, 국가수준의 영유아대상 기초교육과정인 EYFS의 평가에서 출생일이 가장 늦은 유아들 중 52%만이 good level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취학연령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높다. 출생일이 늦은 유아들은 절반만이 국가가 기대하는 표준에 도달한다는 것이며, 이는 이들에 대한 교육과정이 과연 적절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출생일이 늦은 집단에 속한 유아 중 나머지 48%의 유아들은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채로 1학년에 입학하게 되며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초등학교 내내 지속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결국 예비학급의 형식적 교육은 장기적인 이점도 없으면서 이제 막 4세가 된 어린 유아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할 수 있다.

3. 박탈된 가정환경에 처한 유아들은 조기교육으로 도움을 얻었는가?

박탈된 가정환경에 처한 유아들이 생의 이른 교육으로 긍정적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영국의 정부차원에서 실시한 몇몇 대규모 영유아교육과 관련한 종단 프로젝트의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예: Sure Start, EPPE). 영국은 2003년 잉글랜드의 가장 낙후된 지역 중 20%를 선정하여 Sure Start Children's Centres를 세우고 국가적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Sure Start Children's Centres는 영유아의 교육, 보육을 비롯한 건강서비스, 부모교육, 부모의 직장고용 및 가정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통합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Sure Start 프로젝트에 참여한 3세 유아들은 참여하지 않은 유아들보다 더 나은 사회성 발달 수준을 보였고, 부모들 역시 가정에서 더 나은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lexander, 2010).

EPPE(The Effectvie Provision of Pre-School Education)프로젝트는 1997년 시작되었으며,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영국 국가적 수준에서 실시한 종단 연구 프로젝트다. 3~7세의 유아 3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지적, 사회적 발달, 부모, 가정, 사회환경 및 이들이 다녔던 preschool 기관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취학 전 유아교육의 질적 측면은 유아발달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후된 가정환경의 유아들에게 양질의 놀이중심교육을 취학 전에 더 오랜 기간 실시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Sylva et al., 2004). 이것은 저소득층의 유아를 학교에 일찍 데려와서 학문적인 기술을 가르치기보다, 발달수준에 맞는 교육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몇 세에 영유아교육·보육기관 이용을 시작했는가보다는 어떠한 기관에서 어떠한 교육과 보살핌을 받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preschool의 여러 유형을 중심으로 하여 장기간의 교육 효과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양질의 교육기관에서 놀이중심의 교육을 받을 때, 유아의 발달이 촉진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여)로써 신체적, 언어 및 의사소통, 수학 및 문해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17개 문항 중 12문항에서 'expected', 혹은 'exceeded'를 받아야 'good level'로 분류된다(Cotzias et al., 2013).

www.kci.go.kr

이는 4세부터 학업적 기술을 가르치는 예비학급이나 이른 취학이 저소득층 가정 혹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유아들에게 효과적일 것이라는 논리와는 다른 맥락에서 논해져야 하는 것이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5세인 영국의 학제 및 제도 수립 배경, 이른 취학연령의 쟁점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 및 유아교육 분야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언제 시작하느냐' 보다는 '무엇을 하는가'에 중점

취학연령이 '몇 세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유아가 취학 연령에 '무엇을 하는가'가 되어야 한다. 유아의 취학연령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아의 발달적 수준에 맞는 내용과 방식의 교육 제공 여부이다. 이른 취학이 우려가 되는 지점은 바로, 현재 학교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유아의 발달수준에 맞지 않다는 점에 있다. 5세 취학은 자연스럽게 4세를 대상으로 취학 준비를 위한 선행학습을 불러일으킨다. 4세 유아들이 교실에 앉아서 쓰기와 셈하기에 대한 형식적 교육을 받는 것은 발달적으로 매우 부적합하며, 이들은 놀이를 통해 배우고, 놀이의 방식으로 가르쳐져야 한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 왔다.

Norbury et al.(2016)에서도 예비학급에서는 교육과정 수준을 조절해야 하며 유아의 수준에 맞도록 쉬워야 하며 이는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예비학급은 'reception'이라는 용어 자체에서도 보여주듯이 1학년을 준비시키기 위한 학급이기에,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는 EYFS에서도 교육과정의 목표로써 학교 준비도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몇몇 북유럽 국가에서는 7세의 취학연령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연령이 되기 전까지 형식적인 문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7세로 문해교육을 미루는 것은 읽기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읽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키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Bedard & Dhuey, 2006; Norbury et al., 2016). 그러므로 먼저 아동의 발달적 수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에 맞는 교육내용 및 방식의 제공에 대한 논의가 필수로 요구된다.

2. 교육의 주체인 '유아'에 대한 고려

5세 취학은 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

www.kci.go.kr

우, 의무교육 대상 취학연령이 5세가 된 가장 큰 배경에는 정치 및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이 배경에 '유아'는 그다지 중심이 되지 못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22년에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하향화' 방안을 제기하면서, 두 가지 이점 - 교육격차 감소와 조기입직을 통한 경제발전-을 제시하였다(YTN24, 2022).

첫 번째 이점으로 제시된 내용은 일찍 취학을 하게 되면 누적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학습결손을 최소화하여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학습결손'의 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 초등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역량이 되지 않는, 즉 기본 학업기술을 갖추지 못한 유아를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이미 영유아기 교육을 받지 못하여 그 시기에 알아야 할, 배워야 할 지식과 기술을 익히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다.

만약 학습결손의 의미가 전자의 경우라면, 유아의 학업기술역량부족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고려해보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누리과정의 성취여부는 양적평가 대상이 아니며 취학 전 유아의 학습준비도를 검사하는 것은 특수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이지 않다. 학습결손의 의미를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것은 학교가 유아의 개인적 배경이나 차이를 고려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더 효과적, 효율적으로 다양한 개인에게 교육과정을 전달하게 할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학교의 기준에 맞추어 유아가 따라올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Ritchie와 동료들은 "모든 어린이가 학습할 준비를 갖추도록 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모든 학교도 역시 모든 어린이를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itchie et al., 2010:162)라고 하면서 학교와 유아 모두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만일 학습결손의 의미가 후자의 경우라면, 학교에 들어가면 취약계층가정 자녀의 학습결손이 줄어드는지 고려해봐야 한다. 취학 전 질 좋은 영유아교육을 받지 못한 채 취학을 하게 되는 유아들은 이미 불평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취학연령을 앞당긴다고 격차가 줄어든다기보다는, 현재 발달 수준에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Mariano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유아의 준비도를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이었고, 유아의 학교준비도는 이후 학업성취도를 예측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저소득층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위하여 문해, 수학교육을 이른 시기에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유아의 발달수준에 맞춘 양질의 유아교육을 통하여 이들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게 하여 젊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해외의 여러 연구가 경제적 이득은 별로 나타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었다(Balestra et al., 2020; Crawford et al., 2013; Fredriksson & Öckert, 2013). 취학연령 1년 하향화로 입직연령이 하향화된다고 해도 경제활동인구 증대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이다.

영국의 유아교육은 유아의 현재에 집중하기보다는 미래를 준비시키기 위한 단계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예비학급은 국가수준교육과정으로 가기 위한 대기실(waiting room)

www.kci.go.kr

이라는 강한 비판도 일고 있다(Trevor et al., 2020).

현재 영국이 그러하듯, 5세에 초등학교에 가면 4세부터 초등을 준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무교육) 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며 둘 간의 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 즉 유아교육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Moss, 2017). 유아교육이 초등교육을 위한 준비교육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영국의 영유아기 기초교육과정인 EYFS의 학습 목표 중 하나는 초등학교 준비(readiness for year 1)이다. 이는 EYFS교육을 법제화한 2010년부터 최근 개정된 2021년까지 EYFS는 지속적으로 학교준비(school readiness)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이 이렇게 하향화(top-down approach)방식으로 상급학교의 교육과정이 보다 아래(어린 연령에 있는)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가장 아래에 있는 영유아들에게까지 학업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학부모를 포함한 일반인에게 유아교육이 '(상급)학교를 위한 준비 과정' 역할이 요구되는 경향이 있고, 유아교육 분야 전문가는 이로 인한 문제점(예: 초등학교 입학 전 한글 떼기, 유치원에서 받아쓰기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창복, 김혜원, 2017; 박진이, 이정욱, 2018; 전홍주 외, 2012; 조혜진, 김수연, 2017). 만약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5세에서 4세로 조정된다면 초등학교를 위한 준비(preparatory schooling)가 1년 더 하향되는 것은 예측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당사자인 '유아'의 입장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

3. 교육의 구조적 및 과정적 질에 대한 고려

유아교육의 질은 이후 유아의 발달과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유아교육의 질은 크게 구조적 질(유아-교사 비율, 교사의 자격요건, 집단의 크기, 물리적 공간, 환경 등)과 과정적 질(process quality)(교육과정의 질, 유아의 경험 등)로 나누어볼 수 있다(Melhuish & Gardiner, 2019). 이 두 가지는 서로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EPPE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의 질은 구조적 질에 속하는 교사의 자격요건과 관련이 있었다. 3-4세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보육, 교육기관유형 중 공립기관이 사립기관 보다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훨씬 우수하다는 점이 나타났고 이는 결국 교육과정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여주었다(Melhuish & Gardiner, 2019).

이 점은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개입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한다. 유아들의 발달과 학습을 돕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아들을 학교로 일찍 데려오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질과 관련한 여러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영유아교육기관의 질이 매우 다양하다. 교육시설, 특히 사립이나 비영리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 물리적 환경의 질적 수준이 낮고, 교사자격요건과 그에 따른 처우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Melhuish, 2016; Melhuish &

www.kci.go.kr

Gardiner, 2019)

또한, 영국의 EYFS와 우리나라의 누리과정은 그 전제나 목표에서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아기 자체를 존중하고 유아를 중심으로 한 교육방법과 내용,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유아기를 상급학교의 준비기간으로 보고 있다. 교육과정의 구체성 측면에서도 EYFS에서는 각 영역에 대한 설명 및 성취목표(Early Learning Goals: ELGs)만 제시되어 있을 뿐 각 영역에 대해 구체적 교수방법이나 접근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EYFS에서는 각 영역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써야 하고 어떠한 계획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지침이 없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3-5세 누리과정의 해설서, 지침서, 교사용 지도서 등이 체계화되어 있으며, 2019개정누리과정에서도 놀이해설서, 놀이사례집 등을 다양하게 출간하여 교사들에게 교수방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EYFS는 교육과정의 접근방식에 있어서도 놀이중심이어야 하는지, 지식전달로 해야 하는지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학교준비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놀이중심 유아교육과정과 명확한 대비를 이룬다.

이렇듯 이른 취학을 제도화하는 국가의 유아교육과정은 한국의 그것과 매우 다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유아중심교육의 관점을 지닌 한국적 유아교육의 토양에서 유아들이 1년을 앞당겨 학교에 입학하도록 하는 것은 한국유아교육과정의 본질과 매우 모순되는 양상이다.

본 연구는 영국의 취학연령이 5세로 정해진 배경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영국의 취학연령제도는 유아에 대한 고려보다는 외부적 요구 때문에 제정된 경향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정책은 그 정책의 당사자가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른 취학연령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성인의 삶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과 국가의 경제적 부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취학연령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정책 당사자이자 교육의 주체의 '유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교육제도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는 교육현장의 요구가 선행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뒤 제도가 구축되는 상향식 접근(bottom-up approach)이 필요하다. 하향식 접근은 위계(hierarchy)상 상급자의 권한으로 자신의 결정을 하위 조직으로 전파하는 것으로 이른 시일 안에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반면(Stewart et al., 2015), 상향식 접근은 많은 사람의 합의와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며 오랜 시간에 걸려 점진적인 변화를 이룬다. 따라서 정책 입안 관련자들은 두 접근법은 변화를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 변화를 만드는 주체자 및 방식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면 한계상 그리고 연구의 목적상, 상대적으로 늦은 취학연령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와 영국을 상세하게 비교하기는 제한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더 나아가 취학연령이 서로 다른 여러 국가의 상황을 비교해본다면, 취학연령을 하향화하는 정책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 기대한다.

www.kci.go.kr

참 고 문 헌

교육부 (2022. 8. 8). [한컷]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약식문답.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40&lev=0&statusYN=W&s=moe&m=020201&opType=N&boardSeq=92266에서 2023년 2월 22일 인출

김명순, 신윤승, 이세원, 서재화 (2016). 영유아교사 전문성 관련체제 고찰: 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4), 151-181. http://dx.doi.org/10.14698/jkcce.2016.12.04.151

김창복, 김혜원 (2017). 유초 연계 관점에서 본 만 5세 쓰기교육 관련 유치원 교사의 신념과 실제 교육현황 비교. 어린이미디어연구, 16(1), 103-129. http://dx.doi.org/10.21183/kjcm.2017.03.16.1.103

박진이, 이정욱 (2018). 수업맥락에서 나타나는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가 가지는 유초연계의 의미. 유아교육학논집, 22(5), 35-60. http://dx.doi.org/10.32349/ECERR.2018.10.22.5.35

영국정부 홈페이지 (n.d.). https//www.gov.uk/national-curriculum에서 2023년 2월 20일 인출

전홍주, 박은혜, 이지현 (2012). 부모들의 관점에서 본 유아 문해 교육. 열린유아교육연구, 17(5), 121-142.

조성연, 김선영, Donn, G. (2006). 영국의 초등학교 조기 취학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유아교육학제 개편 방향. 유아교육연구, 26(4), 51-73.

조유라 (2022. 8. 1). “공론화-의견수렴 없이 만 5세 초등입학 추진”… 학부모-교육단체 반발.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801/114747936/1에서 2023년 3월 12일 인출

조혜진, 김수연 (2017). 유치원의 유·초등 연계교육 운영 현황과 교사들이 인식한 어려움. 열린유아교육연구, 22(3), 203-228. http://dx.doi.org/10.20437/KOAECE22-3-09

주영한국교육원 홈페이지 (n.d.). 영국의 학제. http://koreaneducentreinuk.org/%EC%98%81%EA%B5%AD%EA%B5%90%EC%9C%A1/%EC%98%81%EA%B5%AD%EC%9D%98-%ED%95%99%EC%A0%9C/에서 2023년 2월 20일 인출

지성애, 백선희, 채영란 (2007). 영국의 영유아 교육. 보육 지원 제도. 유아교육연구, 27(5), 135-155.

Alexander, R. J. (Ed.). (2010). *Children, their World, their Education: final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Cambridge Primary Review*. Routledge.

Balestra, S., Eugster, B., & Liebert, H. (2020). Summer-born struggle: The effect of school starting age on health, education, and work. *Health economics, 29*(5), 591-607. https://doi.org/10.1002/hec.4005

Bedard, K., & Dhuey, E. (2006). The persistence of early childhood maturity: International evidence of long-run age effect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1*(4), 1437-1472.

Black, S. E., Devereux, P. J., & Salvanes, K. G. (2011). Too young to leave the nest? The

www.kci.go.kr

effects of school starting ag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3*(2), 455-467.

Bonetti, S. (2019). *The early years workforce in England: A comparative analysis using the Labour Force Survey*. Education Policy.

Bradfield, K., & Priestley, M. (2021. February 23). *School Starting Age(SSA): A Brief Summary*. https://dspace.stir.ac.uk/retrieve/53b495d8-c4d9-48d6-aeb9-72d634b8dd56/Bradfield%20and%20Priestley%20School%20Starting%20Age%20Summary.pdf에서 2023년 2월 13일 인출

Cotzias, E., Whitehorn, T., & Teacher, S. T. A. (2013). *Topic Note: Results of the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Profile(EYFSP) Pilot Research report*. Department for Education.

Crawford, C., Dearden, L., & Meghir, C. (2013). *When you are born matters: the impact of date of birth on educational outcomes in England* (IFS Working Papers No. 10, 06).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Department for Education (2014). *The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Framework document.*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81344/Master_final_national_curriculum_28_Nov.pdf.에서 2023년 2월 25일 인출

Department for Education (2021). *Statutory framework for the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Setting the standards for learning, development and care for children from birth to five*.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74907/EYFS_framework_-_March_2021.pdf.에서 2023년 2월 25일 인출

Dhuey, E., Figlio, D., Karbownik, K., & Roth, J. (2019). School starting age and cognitive development.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38*(3), 538-578. https://doi.org/10.1002/pam.22135

Fredriksson, P., & Öckert, B. (2013). Life cycle effects of age at school start. *The Economic Journal, 124*(579), 977-1004.

Mariano, M., Santos-Junior, A., Lima, J. L., Perisinotto, J., Brandão, C., Surkan, P. J., … Caetano, S. C. (2019). Ready for school? A systematic review of school readiness and later achievement. *Global Journal of Human-Social Science Research, 19*(10), 56-64.

McMurray, S. (2021). *School starting age: Policy and practice in the UK* (Research and Information Service Briefing Paper, NIAR 118-2021, No.39/21). Northern Ireland Assembly. http://www.niassembly.gov.uk/globalassets/documents/raise/publications/2017-2022/2021/education/3921.pdf에서 2023년 2월 13일 인출

Melhuish, E. (2016). Longitudinal research and early years policy development in the UK.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10*(1), 1-18. https://doi.org/10.1186/s40723-016-0019-1

Melhuish, E., & Gardiner, J. (2019). Structural factors and policy change as related to the qual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for 3–4 year olds in the UK. *Frontiers in Education,*

www.kci.go.kr

4(35), 1-15. https://doi.org/10.3389/feduc.2019.00035

Moss, P. (2017). 유아교육과 의무교육 관계를 재개념화하기[*Early Childhood and Compulsory Education: Reconceptualising the relationship*]. (정선아, 윤은주, 이진희 역). 창지사. (원저 2013년 출판)

National College for Teaching & Leadership (2013. March 3). *Teachers' standards(Early Years)*. National College for teaching & Leadership.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 attachment_data/file/211646/Early_Years_Teachers__Standards.pdf에서 2023년 2월13일 인출

Norbury, C. F., Gooch, D., Baird, G., Charman, T., Simonoff, E., & Pickles, A. (2016). Younger children experience lower levels of language competence and academic progress in the first year of school: evidence from a population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7*(1), 65-73. https://doi.org/10.1111/jcpp.12431

OECD (2022). *Education at a Glance 2022: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3197152b-en.

Ofsted (2007). *The Foundation Stage: a survey of 144 settings*. Ofsted.

Riggall, A., & Sharp, C. (2008. February). *The structure of primary education: England and other countires*. NFER. www.nfer.ac.uk/nfer/publications/PRO01/PRO01.pdf에서 2023년 2월 19일 인출

Ritchie, S., Clifford, R. M., Malloy, W. W., Cobb, C. T., & Crawford, G. M. (2010). Ready or not? Schools' readiness for young children. In S. Kagan & K. Tarrant (Eds.), *Transitions for young children: Creating connections across early childhood systems* (pp. 161-173). Brookes.

Roberts-Holmes, G. (2015). The 'datafication' of early years pedagogy: 'if the teaching is good, the data should be good and if there's bad teaching, there is bad data'. *Journal of Education Policy, 30*(3), 302-315. https://doi.org/10.1080/02680939.2014.924561

Sanders, D., White, G., Burge, B., Sharp, C., Eames, A., McEune, R., & Grayson, H. (2005). *A Study of the Transition from the Foundation Stage to Key Stage 1* (Research Report SSU/2005/FR/013). 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

Sharp, C. (2002. November). School Starting Age: European Policy and Recent Research. *When Should Our Children Start School?*. Paper presented at the LGA Seminar, pp. 1-27. LGA Conference Centre, Smith Square, London.

Sharp, C., & O'Donnell, S. (2007). Starting school at four: The English experience. In Consortium of Institution for Development and Research in Education in Europe(CIDEE) (Ed.), *The education of 4- to 8- year-olds-re-designing school entrance phase* (pp. 15-26). CIDEE.

Stewart, G. L., Manges, K. A., & Ward, M. M. (2015). Empowering sustained patient safety: the benefits of combining top-down and bottom-up approaches. *Journal of Nursing Care Quality,*

www.kci.go.kr

30(3), 240-246. https://doi.org/10.2307/1352457

Sykes, E. D., Bell, J. F., & Rodeiro, C. (2009). *Birthdate Effects: A Review of the Literature from 1990-on*. University of Cambridge.

Sylva, K., Melhuish, E., Sammons, P., Siraj-Blatchford, I., & Taggart, B. (2004). *The effective provision of pre-school education(EPPE) project technical paper 12: The final report-effective pre-school education*.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Trevor, G., Ince, A., & Ang, L. (2020). Toward a child-centred curriculum. In C. Cameron & P. Moss (eds.), *Transforming early childhood in England: Towards a democratic education* (pp. 100-118). UCL Press.

Turner-Cobb, J. M., Rixon, L., & Jessop, D. S. (2008). A prospective study of diurnal cortisol responses to the social experience of school transition in four-year-old children: Anticipation, exposure, and adaptation. *Developmental Psychobiology: Th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Developmental Psychobiology, 50*(4), 377-389.

YTN24 (2022. 7. 30). 초등학교 입학 1년 빨라진다... 2025년부터 만 5세 입학 추진. https://www.ytn.co.kr/_ln/0103_202207301526063029에서 2023년 3월 12일 인출

www.kci.go.kr

ABSTRACT

A critical review of the UK's starting school age at five

Lee, Seung-ha (Chung-Ang University)
Kim, Hwewon (Yeu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ducational system and compulsory school age in the United Kingdom, which is a representative country for starting elementary school at age 5, and to consider the implications for the school age policy in Korea. The UK's compulsory school age is related to the demands of employers and parents due to industrialization, securing new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care and education for children from poor families. Analysis of related issues showed that early starting age needs to be approached with greater caution. Starting formal education in the early stages of life and teaching foundational skills did not help the cognitive development of children, but rather caused mental stress in regard to academics. While early starting age may seem beneficial for children from low SES backgrounds for a while, its effects varied depending on the content and method of education, as well as the parents' personal background and level of involvement. The discussion of compulsory school age leads to consideration of whe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providing educational content and methods appropriate for the developmental level of children. It reminds us of the essen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hich should prioritize children's well-being over external purposes such as generating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or national development.

www.kci.go.kr